

# 말씀의 샘

믿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15~27 / 히브리서 11:6>

1892년 미국의 조지 월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 결국은 교수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 친구들이 탄원에 나섰고, 다행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신이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한 월슨은 그냥 죽겠다고 고집하면서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셜이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조지 월슨은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으며,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보안관의 책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면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재고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막 9:19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은유하시고 그 인자하신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세대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막 16: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중에 하나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어 성경에는 'must believe' 라 표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는 않으면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가복음 9: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① 문제에 찌들고 오랜동안 자주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고 어릴 때부터 자주 이일을 겪은터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기대를 갖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② 기도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전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 때는 억지로라도 따라다니며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들이 기도를 원 듯 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답변하실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심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어쩔 수 없이 강박하고, 믿음에 있어서 완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③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들어가는 강박함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3: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④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신앙과 영적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은 경제적 가치가 없고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질 못하기에 시간이 남아돌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잠언 24:30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1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32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밭주인이 밭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니 영망이 되어 전혀 파종과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버려진 밭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무관심에 내버려진다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⑤ 그때뿐인 자극, 1회용 결심이 문제입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은혜받아도 오래가질 못하는 그때뿐인 신앙이 되면 변화도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우리에게는 믿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① 믿고자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의 속내를 보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여인도 그랬고, 누가복음 18장에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끌리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는 결국 믿게 됩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고자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②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오고, 기도응답을 통해 가장 많이 믿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9: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역사에는 기도가 필요함을 제자들에게 시사하면서 이 본문의 사건은 마쳐집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십니다. 믿으려는 의지와 함께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믿음을 얻으려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찌되었겠습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 믿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값진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고 값지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7년 2월 12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7. 2. 19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표기도 ----- 김 현아 집사

헌금

성경봉독 ----- 요한복음 11:38~44

말씀선포 ----- 이 강화 목사

### 감정과 믿음

축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8:00

말씀의 격려와 영성의 생명적 삶  
두란노 교회

DURANNO CHURCH

두란노 교회

두란노 교회